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I . 감사개요 1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II . 주요 감사실시 내용 4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III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I 감사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3. 11. 8.(수) ~ 11. 21.(화), 14일간
- ※ 제324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11. 7.(화) ~ 12. 15.(금), 39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해당 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기업
•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 글로벌본부	• 강원개발공사
• 행정국	• 감사위원회	
• 특별자치추진단	• 강원도립대학교	

나.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 : 2개 기관

-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
- 사무보조 : 기획행정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8.(수)	14:00	특별자치추진단	위원회 회의실	
11. 9.(목)	10:00	강원도립대학교	위원회 회의실	
	14:00	강원개발공사		
11. 10.(금)	10:0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4:00	글로벌본부		
11. 13.(월)	14:00	강원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 14.(화)	10:00	기획조정실	위원회 회의실	
11. 15.(수)	10:00	행정국	위원회 회의실	
11. 16(목)	10:00	감사위원회	위원회 회의실	
11. 17.(금) ~ 11. 21.(화)	· 감사결과 정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 11. 8.(수) 10:00

※ 11월 11일 ~ 12일, 18일 ~ 19일 (토요일, 일요일)

※ 감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II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합 계	246건	
① 기획조정실	41건	
② 행정국	31건	
③ 특별자치추진단	26건	
④ 글로벌본부	23건	
⑤ 강원도립대학교	14건	
⑥ 감사위원회	31건	
⑦ 강원인재육성평생 교육진흥원	19건	
⑧ 강원개발공사	23건	
⑨ 강원연구원	38건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기획조정실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1.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 8.62%로 매우 저조한데 그이유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 다수 있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리라 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음.
	2.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면 차후 연도 기금 배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개 시군 집행률이 0%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시군 합동점검을 하겠음.
	3. 2024년 당초예산 기존 사업예산을 22.9% 2,437억 원을 삭감했는데 기존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가?	3단계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몰하였음. 다만 미래산업과 서민복지 예산은 늘렸음.
	4. 최근 2년 동안 8개 위원회 폐지, 2개 통폐합, 7개 비상설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위원회 수가 5개로 증가했음. 지사님의 위원회 축소 약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음.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음.
	5.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보다 비용이 훨씬 큼. 이러면 안하느니만 못하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6.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3년동안 모두 서면 회의를 했음. 코로나가 상황이 해제된 후에도 대면회의가 없었음. 중요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7. 2021년부터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됨. 주민만족도 평가도 좋고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지속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음.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중복됨.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8.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이나 역점사업으로 집중된다는 시각이 있음.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일몰되었으니 도가 중심을 잡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9. 통합재정수지는 △2.99%로 한도를 준수하였으나 실질채무비율은 9%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음. 조례 첫 시행해에 허용한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함. 향후 채무관리 방향은?	채무 1조에서 3,500억 원 줄였다가 다시 2,000억 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버림. 목표는 2025년까지 5%로 맞추는 것이므로 내년도 경기가 좋아져서 추가세수가 들어오면 3,000억 ~ 4,0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면 2025년도에 5%의 재정준칙은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0.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적립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주셔서 내년에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1. 인구정책 관련 사업이 4개 분야, 521개 과제에 몇 년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 검토가 필요함. 단순 재정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구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시어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림.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12. 행사, 연구·조사 등을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용역은 재검토 하라는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점검을 한적이 있는가?	2,000만 원 이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하고 2,000만 원 미만은 실국자체 검토 후 도지사 결재로 시스템을 바꿈. 내년도에 200억 정도 절감 함.
	13. 외부용역을 직원분들이 자체 수행하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시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4. 불량용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액 이상되면 위원회에서 납품 심의를 납품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함.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임	고민해 보겠음.
	15. 신청사 부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명품도로로 만들어 주시고 주차문제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6. 경기도의회가 지역상담소를 2015년부터 시작함. 충남도 하고 있고 경남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임. 이게 실효성이 없고 예산을 잡아먹는 정책이었으면 벌써 없어졌을 제도임. 실익이 더 많으니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임.	의회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17. 지방시대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최근 인구정책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함. 이를 통한 신규사업 반영함.
	18. 의료접근성이 17개 광역 중에 16위, 국공립 유치원도 최하위임. 개선방안은?	강원도의 지리적, 인구적 한계가 있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19. 도립대 행감때 지적사항이 간호학과 신설임. 태백에 강원관광대학교가 있는데 도립대 총장님께서 교육부와 관광대 간호학과 인수에 대한 회의를 함. 도립대가 강원관광대학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태백관광대는 현재 폐교수순을 밟고 있음. 태백시 측에서 강원관광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 존속 필요 그 후에 시설물 매입 등 태백시하고 재정적으로 논의 가능함.
	20. 태백시에서 협의하고 있음. 공립대와 사립대가 통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1. 생활인구 관련 사업 중 야간관광 특화도시, 캠핑 인프라 확대, 해양관광레저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으로 맞지 않음. 인구늘리기 정책과 무관한 사업임.	인구정책을 위해 얼마를 구분해 예산편성하지 않음. 관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분류한 것임.
	22. 현 재정 상황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올해 5월 65세 이상 어르신에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조례를 발의함.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아쉬움. 앞으로 도세감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 바람.	그렇게 하겠음.
	23.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담당부서인 균형발전과에 힘을 보태줘야 함. 20대 인구의 순유출 등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내년도 조직개편 시 이민과 외국인 관련 부서들을 보강하면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음.
	24. 세수결손 상황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안전망의 문제는 없는가?	자체사업의 23%를 구조조정하였으나 서민복지예산은 증액함.
	25. 강원도가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음.	신청사 건립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들을 조금 추스를 필요가 있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26.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 출산, 교육 쪽에 집중하셔서 실질적인 인구확산정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7. 2025년부터 시행되는 RISE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윤곽이 드러나면 즉시 보고하겠음.
	28. 주민참여 예산비율이 너무 낮음.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올해 16억, 내년 23억 임.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 단순비교는 어려움.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음.
	29. 취득세 세수추계가 과다하게 됨. 세수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0. 신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1. 보조금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인데 4,567%가 증액된 사업이 있음.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음.
	32.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500만 원 이상 채납자 명단도 공개되었으면 좋겠음.	고민해 보겠음.
	33. 고문번호사수가 적정한지 업무량에 비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34. 공공기관의 과징금, 가산금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강개공에서 가산금으로 1,700만 원 납부, 2021년 강원연구원 253만 원 불성실 가산세 납부, 2023년 강원수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71만 원 납부하였음.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좀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음.
	35.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지자체장들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옴. 인사청문 대상 기관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음.	6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 하는 것으로 협의함.
	36. 기조실의 기획·조정기능을 위해서는 조직관리기능을 기획실로 가져와야함. 인사와 조직은 분리되어야 함. 다음 조직 개편시 분석과 평가, 의견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7. 강원통계브리프의 통계자료가 수준이 높음. 도의회에 공유를 해주시길 바람.	의원님 개인 메일로 다 송부해드리겠습니다.
	38.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해주시고 부진한 시군이 없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9.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 현황을 보면 강개공,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강원심층수,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 일자리재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응 방안은?	강개공은 현물출자와 강원랜드 주가상승,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은 운영상 흑자임. 의료원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원과 통합하여 문제없음.
	40. 지역농축산물 군납건 관련 국방부는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비중을 늘리겠다고 함. 대안은?	투쟁을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 조정실 (41 건)	41. 강원도가 서울시가 삼척에 골드시티를 조성 한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람.	순환주택사업으로 본인소 유주택을 팔고 그자금으로 SH공사에서 만드는 골드시 티로 입주할 함.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② 행정국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행정국 (31건)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도의 고용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장애인들의 응시 및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각 시·군 회계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하겠음.
	3. 부단체장 관련 시군 인사교류 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직급 조정이 필요함.	
	4.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5. 폐지된 다면평가의 순기능 및 재도입 여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함.
	6. 출자·출연기관 단기간 공무원 파견 등의 성급한 인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인사 운영에 있어 참고 하겠음.
	7. 국외 장기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정책 반영 등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8. 입법평가에서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조례 개정 등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9. 업무에 적합한 적정 정원 조정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10. 정보화마을의 광역화 등 사업효과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함.	노력하겠음.
	11. 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유연한 소통 행정이 필요함.	적극 공감하고 동의함.
	12. 도 공직채용 경쟁률 제고 및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노력하겠음.
	13. 도 전입시험 관련, 시·군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제도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행정국 (31건)	14.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주문함.	다자녀 우대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15. 공무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순환근무 배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16. 성과 및 정책사업의 목표와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17. 도시계획직, 학예연구직 등의 전문 인력 정원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음.
	18. 파견 직원의 복귀 시, 일부 소수직렬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세밀하게 챙기겠음.
	19.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의 분리와 관련하여, 현재 시스템의 사후 평가와 고민이 필요함.	계속해서 고민하겠음.
	20. 활용도와 이용률이 낮은 위하고앱의 이용현황 파악 및 사업검토가 필요함.	긴밀히 파악 후 향후 이용계획을 고민하겠음.
	21.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에 대한 부과 및 정리가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22. 적극 행정 차원에서 민원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23. 일반용역 입찰 시, 가급적 지역업체들이 참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알겠음.
	24.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양성 평등을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충분히 공감함.
	25. 육아휴직 권장 및 후속조치 등 긍정적이고 평등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함.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하겠음.
	26.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세밀하게 검토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행정국 (31건)	27. 직원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신경써주기를 바람.	그렇게 하겠음.
	28.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 도의회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하위직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음.
	29.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30. 장기교육과정을 수행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검토해서 진행하겠음.
	31. 제2청사 직원들의 고충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그렇게 하겠음.

③ 특별자치추진단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특별자치 추진단 (26 건)	1. 시행령 안을 중앙부처와 2023년 11월까지 협의·조정 완료해 주길 바람.	잘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3차 개정안에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 잦은 인력교체는 중앙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는 경험축적을 방해하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4. 제3차 개정에는 자치조직권을 반영하도록 해주 시고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대응해서 자체세원을 확보해 주시길 바람.	중앙부처에 우리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노력 하겠음.
	5. 전문가자문단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서 특별법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6. 경석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 고 4차 산업 신소재로 활용하기 좋은 광물임. 반드시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7. 웹툰이 온라인에도 노출되지 않고 제작부수도 2,000부에 불과해 홍보효과가 떨어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잘 명심해서 반영하겠음.
	8. 특별자치추진단은 한시기구로 2024년 6월 30일 까지 운영됨. 업무의 연속성과 특례발굴, 농업·환경 분야의 한시적 조항들을 감안하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필요함.	시도의 국 개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재검토 될 것 같음.
	9. 웹툰을 제작하고도 온라인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제때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	세부적인 내용을 웹툰에 담느라 늦어졌음. 현재 웹툰을 포함한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한 작업 중임.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특별자치 추진단 (26 건)	10.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늦게 마무리 되었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당초 용역기간이 3월 9일 까지 였으나 법이 통과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6월 9일까지 연장하였음. 최종보고는 6월 7일 하였음. 최종보고 시 추가요구사항을 반영하느라 최종보고서가 늦어짐.
	11.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2. 용역 발주만 중요한 것이 아님.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3.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제주와 세종에 비해 너무 추상적임. 또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는 것이 얼마 안되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음.	강원도는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되어서 제주나 세종과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음. 가시적 성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4. 도지사에게 권한이양이 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음. 그것을 견제하려면 의회의 특례가 중요함. 지방의회 특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5. 기업유치를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기업호민관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16. 전문가 자문단에 법적으로 문제있는 분도 계신거 같으니 수시로 체크해서 잘 정비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특별자치 추진단 (26 건)	17. 심각한 지역소멸위기의 해결방안은 교육특구지정 또는 교육특례반영이 중요함.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18. 부론국가산단지역 위치가 한강수계법상 공장설립승인 1호 대상지역임.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3차 개정을 통한 특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 바람	그렇게 하겠음
	19. 무사증 확대방안도 논리를 꼭 보강해서 3차 개정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0. 매출총량제 완화 등 강원랜드 규제완화 부분은 당장 법안에 담지 못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1.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는 것 보다 조례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2. 제주, 세종, 전북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바람	11월 27일에 4개 자치단체장이 협약 예정임. 상생·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임.
	23.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을 때 액수가 많은 것은 위원회 심사 등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진행자료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길 바람.	필요하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 진행자료와 결과물을 제출하겠음.
	24. 국가항인 동해북호항과 지방항인 삼척항, 옥계항과의 거리가 10KM, 13KM임. 여수나 광양처럼 가까운 거리를 묶어서 국제항으로 개발하면 항만공사를 설립해 공공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함.	좋은 아이디어임.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여서 필요하다면 건의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특별자치 추진단 (26 건)	25. 3차 개정에 국제학교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6. 산림과 농지 관련 조례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④ 글로벌본부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글로벌 본부 (23 건)	1. 글로벌본부가 개칭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도민들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체감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음. 폐광지역 문제라든가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화 시키는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관광분야 관련해서도 특화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내년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2. 자원산업과가 2청사에 떨어져 있다보니 시군에서 직원분들과 소통의 문제점이 있다. 본부장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람.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음. 건물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불편함. 내년 초에 공사가 되면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됨
	4. 글로벌본부가 들어간 청운관에 VR골프연습실이 있었는데 국가재정사업이라 원상복구를 해줘야 함.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옥상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5. 통근버스 및 직원 관사 예산을 합치면 연간 10억 정도고, 앞으로 직원들을 충원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될 텐데 신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음. 관사 운영이라든가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봄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글로벌 본부 (23 건)	6. 지금처럼 계속 순환근무제로 돌릴 계획인지? 2청사에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렬이 있지 않은지?	경남 같은 경우 기술직 렬들이 2청사에 가 있는 구조인데 거기도 그에 따른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런 점들을 감 안해서 앞으로의 운영방 안을 강구하겠음.
	7. 지역발전을 위해서 2청사 개청이 됐는데 그 런 홍보는 하고 있는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 은 홍보를 하고, 유관기 관들을 많이 만나서 의 견을 나누어 왔다.
	8.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 중에서 앞으로 개 선되거나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 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람.	본청에 있을 때 와는 다 르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 이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
	9. 최근 몇 년간 양양·강릉지역에 해양레저산업 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해양관광레저팀 인력이 4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맞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 으로 조정하더라도 필요 하면 증원할 계획임.
	10. 내부적으로 지역본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 지 못함. 일단 본청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추 진될 거 같음.
	11. 주민들과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방 안이나 추후 특례를 발굴할 계획을 마련하 고 있는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소관 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12. 연간 예산이 20억씩 들고, 향후 2청사 인원이 더 늘어남에 따라 관사 문제 등 장기적인 대 안을 만들어야 함.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글로벌 본부 (23 건)	13. 글로벌본부라는 명칭이 와닿지가 않음. 강원도청 영동본부 아니면 강원도청 영동청사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지?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면 검토해 보겠음.
	14. 글로벌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강원도의 발전의 성패가 달려있음.	동의함.
	15. 영동지역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플랜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음.	지역의 의견을 담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임.
	16. 제2청사가 옴으로써 도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못했음.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했음.
	17. 창호·방수·단열공사에 9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누수하고 단열은 개청공사 시에 함께 했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아쉬운 부분임. 앞으로 안전 문제 등으로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공사비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특별히 필요할 것 같진 않음.
	18. 2청사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청사도 신축을 해야하고 강원도가 내년에 건축재정기조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임.	그 부분을 당장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임.
	19. 글로벌본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바람. 제2청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0. 오색삭도사업이라든가 양양공항 같은 경우도 보고를 수시로 받고 인근 지역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차질없이 사업추진 되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글로벌 본부 (23 건)	21. 관광산업이라든가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 속히 양양공항이 정상화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글로벌본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2. 본부장이 판단하기에 글로벌본부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신청사 추진 문제도 있고 재정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것처럼 2청사가 영동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지역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23. 동해안 지역주민들이 본청에 오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 종합민원실 역할과 기능을 조금 보강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함.	현재도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음. 다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⑤ 강원도립대학교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도립 대학교 (14 건)	1. 타 시·도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2. 교수 업적평가제도의 평가 및 심사 기준의 시정이 필요함.	개선하도록 하겠음.
	3. 잦은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 등의 피해는 없는지?	잦은 개편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겠음.
	4. 취업도 중요하지만, 대학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람.	잘 알겠음.
	5. 강원관광대와의 통합을 통한 보건전문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부 학과와의 통합은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며, 권한 밖의 사항임.
	6.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공감함.
	7. 제2청사에 공간 제공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알겠음.
	8. 강원관광대 인수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함.	알겠음.
	9. 도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잘 알겠음.
	10.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기업과의 소통 등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 발굴이 필요함.	전적으로 공감함.
	11. 도립대만의 특별하고 전문성 있는 학과 발굴이 필요함.	동의함.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도립 대학교 (14 건)	12. 교수들의 탁월하고 글로벌한 경쟁력과 역량 발휘를 당부함.	명심하겠습니다.
	13. 젊은 교수 및 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알겠습니다.
	14. 대학의 생존을 위해, 도립대 자체적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명심하겠습니다.

⑥ 감사위원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 위원회 (31 건)	1. 도, 시·군, 감사위원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야 함. 계속 노력하고 있음.
	2. 지난번 임명동의안 때 질의 드렸던 두가지 점에 대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람.	연말까지 정리하겠음.
	3. 강원연구원 업무감사 시 원장 책자 발간, 연구비, 업무추진비 등 심도있는 감사를 주문함.	살펴보겠음.
	4. 출자·출연기관 단기 파견 인사 관련,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실·국별 종합감사 시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음.
	5. 감사위원회에 적합한 정원 확보가 필요함.	
	6. 감사의 의미를 처벌에만 두지 말고, 사전 컨설팅 등 우수 행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명심하겠음.
	7. 의료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노조 갈등 관련, 전문성이 동반된 종합감사가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8. 강원테크노파크의 부적정한 재정 집행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명심하겠음.
	9. 감사위원회 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
	10. 도 교육청의 전자철판사업 논란에 대한 생각은?	감사원의 처리를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음.
	11. 실적을 위한 징계 처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2.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동의함.
	13. 감사의 기준 및 잣대가 전 도정과 현 도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명심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 위원회 (31 건)	14. 행동강령책임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적으로 동의함.
	15. 도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16. 전문성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개방형 인재 채용이 필요함.	필요성에 동의함.
	17.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 권한 확대 논란에 대한 생각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큰 염려는 되지 않으나,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이해가 필요함.
	18.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 및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듬.	살펴보겠음.
	19. 감사 시 복무규정 준수와 피감자에 대한 배려·존중이 필요함.	알겠음.
	20.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명심하겠음.
	21. 다면평가 인사제도 폐지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직무감사를 주문함.	실·국별 종합감사 시 살펴보겠음.
	2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	
	23. 사전컨설팅제도를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그렇게 하겠음.
	24. 우수정책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확립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25. 교육청 관련 기관에 대한 원활한 감사와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 위원회 (31 건)	26. 부실한 용역 성과물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검토해 보겠음.
	27. 강원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추가하여 조사 바람.	알겠음.
	28.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9.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알겠음.
	30. 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원칙과 소신있는 감사를 주문함.	노력하겠음.
	31.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그렇게 하겠음.

⑦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인재 육성평생 교육진흥원 (19 건)	1. 취업규칙에 예비합격자 제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2022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받았는 데 후속조치는?	관련규정을 개정을 완료했음.
	2. 손길더함장학금이 2022년 시행되었는데 수혜학생이 시에 편중되어 있고 홍천, 영월, 정선, 화천, 양양, 철원은 혜택을 받는 특수학생들이 1명도 없음.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희망누리 장학금도 마찬가지임. 인평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외되는 장애인, 청소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	학생 수에 따라 계산하여 배분함.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3. 파견공무원 근무기간이 길어야 1년이고 6개월도 안되어서 파견복귀 하는 경우도 있음. 내부 직원들의 박탈감이 상당함. 짧은 파견기간을 감안할 때 파견은 불필요함.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공무원 파견 받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	도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겠음.
	4. 빈대 예방을 위해 방역부분에 대해 신경써주시기 바랍.	그렇게 하겠음.
	5. 2022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500만 원 상당으로 기존대비 2~3배 증가함. 이유는?	국가장학금 증액 등의 이유로 장학금 10억 원이 불용됨.
	6. 2022년 불용예산을 2023년에 다 사용하였는가?	다 사용하였음.
	7.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정산을 해야함.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	그렇게 하겠음.
	8. 타 시도 학사에 비해 도봉, 관악학사 입사경쟁률이 저조함. 퇴사율도 높음 그 이유는?	교통불편과 노후화된 시설이 주요 원인임.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인 재육성 평생교 육진흥원 (19 건)	9. 관악학사 신축관련 2028년 준공이라고 하는데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0. 관악학사 현 부지의 적정가를 산출은 재원대책 마련이나 매각을 위해 중요하므로 감정을 해보 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1. 예상 공사비가 560억 원이나 물가상승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소 요예산도 정확하게 책정하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2. 부지매입이 관건이니 잘 준비하시고 현 부지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3. 부지선정을 할 때 옛날 트렌드에 얽매이지 말고 젊은 층에 맞는 트렌드를 가져가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14. 18개 시군중 참여 안한 시군이 있는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5.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은퇴 후 재취업, 봉사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기 바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음
	16. 2022년도 사업평가를 보면 1명의 담당자가 자 금관리, 예산관리, 결산, 재산관리까지 여러 업 무를 담당하고 있음. 행정지원인력 확보계획은?	RISE센터가 내년도에 확 대되면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반영할 계획임.
	17. 비문해자는 소득률이 낮아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저해됨. 고령화된 비문 해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해교육 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인 재육성 평생교 육진흥원 (19 건)	18. 신축학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건축해 주시기 바람. 예를 들어 현재처럼 2인 1실로 쓰게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대부분 퇴사할 것임. 수요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사를 신축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9. 지역학사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대전, 울산, 대구임. 이는 지역청년의 수도권유출, 지역대학생 역차별 논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여론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임. 강원학사도 서울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춘천, 원주, 강릉에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학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9억 정도 이고 강원도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35억 정도됨. 강원학사의 강원도내 조성은 검토해 보겠음.

⑧ 강원개발공사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개발 공사 (23 건)	1. 신청사, 우두동 개발사업 등 신사업을 위해 부채비율 낮춰야 함. 도가 매번 출자를 해줄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부채비율을 낮춰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2. 태백시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사중단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시 1차 심리 때부터 변호사를 고용했어야 함.	1차 심리는 정황설명 위주라 실무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 했음.
	3. 태백시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태백시와 강개공이 법정다툼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잘 이끌어 내시고 최대한 손해금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4.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각이 담당부서(투자유치과)에서도 매각 계획이 없다고 하고 MDA 때문에도 부지매각이 어려움. 그런데도 어려움에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에 매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MDA 때문에 보류상태임. 도하고 협의하겠음.
	5.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대상에 강개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구책은 있는가?	대형사업 선수금을 부채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음.
	6. 알펜시아 매각금액 및 정산내역 중 2022.12.13. 중재신청한 38억 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종결해주시기 바람.	11월 17일 3차 중재심리가 잡혀있음.
	7. 레고랜드 주차장 위탁운영계약 1년 12억 9,000만원의 수익으로는 투자금(296억 원)을 회수하기 불가능함. 자동 연장하지 말고 물가와 지가 상승이 있으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시고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개발 공사 (23 건)	8. 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비를 도 개발공사가 적절히 투자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음. 즉 시설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 간판, 바닥유도 사인물 보수는 공사가 부담하여야 함. 이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차장을 매각한다는 방침과 상충하는 것임.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불공정 계약이 있다고 하면 변경하시길 바람.	검토하겠음.
	9. 강개공은 설립배경을 보면 공공목적이 최우선이었는데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음. 공공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10.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원주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해 주시길 바람.	종축장 부지 중 오페라 하우스 이외 부지에 구상하고 있음.
	11. 드림랜드 부지에 관한 계획을 소유자인 강개공에서 먼저 수립한 후 원주시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용역비 정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주시가 원하는 면적이 전체의 53% 정도되어서 원주시가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맞다고 봄
	12.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올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람.	춘천은 공공기관 이전 선호도가 높음. 그렇게 하겠음.
	13. 강개공 경영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경영진단을 포함한 5개년 중장기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14. 고은리와 우두동 설계용역 관련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개발 공사 (23 건)	15.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 개발을 춘천시와 공동으로 하는 이유는?	고은리와 우두동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어 춘천시와 공동으로 함.
	16. 강개공 보수시행규정을 보면 장남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시대착오적인 규정이고 호적법은 폐지되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반하거나 내용이 다른 부분은 개정해주시기 바람.	그렇게하겠음
	17. 원주시가 드림랜드부지에 수익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나 공공목적인 사업을 하는데 강개공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치유의 정원은 무료이고 야영장 부분들은 수익이 있으니깐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분리해서 협의를 진행해야함	무상사용은 배임의 이슈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서 어려움
	18. 향후 강개공이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상한 것이 따로 있는가?	구상은 있으나 시기의 문제인데 여력이 있을 때 검토하려고 함.
	19.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공공사업, 수익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잘 짜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0. 드림랜드 부지 앞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가?	결정된 것은 없음. 우선 순위는 원주시이고 원주시와의 협의가 우선임.
	21. 수익계약 비율 중 도내 지역업체 비율이 60% 정도로 높지 않음. 도내 지역업체 수의 계약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개발 공사 (23 건)	22. 2022년도 양구군 체육공원 조성사업 수의계약 3건에 대해 입찰금액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 처음의 다짐과 각오의 마음자세로 공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주 드림랜드 부지 관련 원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⑨ 강원연구원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1. 소급인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는 직급은 원장이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기속행위로 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직급을 원장이 결정하였으므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남. 아직도 경영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함. 연구원 화합차원에서 한 조치임.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것임.
	2. 소급승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이행을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 ‘강원도 분권으로 새시대를 연다’ 책 발간비용은 연구원 비용으로 했는데 왜 현진권 원장과 양철 박사가 저자로 올라가 있는가? 개인이 출간한 것처럼 되어 있음.	연구원 이름으로 하면 독자가 없어서 그랬음.
	4. 연구원 집필에 강원연구원 발간비용이면 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 맞음.	앞으로 지적사항을 반영 하겠음.
	5. 지난 7.13.과 9.14.에 개최되었던 ‘환경시민단체 그들은 누구인가?’ ‘이권 카르텔’ 포럼 관련 주제자체가 급진적이고 단체를 폄하하는 제목임. 토론을 통해 답을 얻어내야지 제목부터 급진적이면 안됨. 원장은 공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람.	지적을 받아들일것임.
	6. 스위스 공무국외 출장관련 장소, 시간, 참석자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7. 강원연구원이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김진태 도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8. 아침공부포럼 개최비용을 따져보면 수당을 빼더라도 1인당 1만원 이상이 아침식비로 지급됨. 좀 과다한 것 같음.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9. 연구원 설립목적은 지역발전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임. 아침포럼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와 관련이 없음. 앞으로 설립목적에 집중해 주시고 도의회와도 소통을 자주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10. 연구원 수행과제가 많은 직원은 1년에 26건이나 됨. 연구과제가 한 쪽을 쏠리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짐. 업무량에 관심가져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겠음
	11. 연구원의 제안을 통해 전기차사업 육성을 하게 됨. 연구결과를 보면 3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7,6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낸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강원도는 투자했으나, 디피코는 회생 신청하였고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못받고 있음.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감은 느끼는가?	일정부분 느낌. 기업의 영업이 부진할 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공공부분의 역할이라 생각함.
	12. 잘못된 연구결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명심하겠음.
	13. 원장 인사청문회 끝나고 많은 부분을 요구했으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중간평가를 받겠다 그 중 하나인데 의회에서 중간평가를 준비해도 되겠는가? 중간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명권자를 통해서 하면 받아야 함. 중간평가 결과 가 좋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 자리에 말하기는 어려움.
	14.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과 연봉 소급계약 부적정으로 원장은 엄중경고, 직원 2명 중징계, 2명 경징계에 대해 재심의 신청 했는데 기각되었음. 신분상 처분 계획은?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음. 일정 준비중임.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15. 급여 3,050만 원 회수하라는 재정조치에 대해 당사자 반환청구해야함. 부당이득으로서 강원연구원에서 당사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지만 잘못된 강원연구원의 결정으로 내가 다시 반환을 하게된 것이니 손해배상청구를 또다시 당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음. 도 감사위원회에서 재정적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법률적 검토는 해보았는가?	아직 해보지 않았음.
	16. 강원연구원 자체 감사실을 작년 11월 폐지하고 충무감사팀에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함. 팀장 포함 5명이고 그중 팀원이 노무, 보수, 감사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박사가 감사실장하고 있어 연구역량 집중 위해 감사실 폐지함.
	17. 외부전문가 기관평가에 따르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라’가 개선과제 중의 하나였음. 자체 감사팀이 없는 것이 문제임	(사무국장 대신답변) 사무국 직원들의 경력이 충분하여 이행하는데 문제 없음.
	18. 클린아이시스템에 따르면 직원 평균임금이 2021년 8,300만 원, 2022년 7,900만 원 정도 인데 충북과 전북연구원과 비교를 하면 20~30% 높음. 충북연구원은 2022년 기준 기획과제는 17건인데 강원도는 8건임. 강원연구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임.	강원연구원은 기획과제를 큰 과제로 추진함. 이런 건은 인원투입량이 매우 높음. 단순 비교는 어려움. 앞으로 조화롭게 적용시키겠음.
	19.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사업의 집행률이 40% 정도 밖에 안됨.	11월 초 행사를 12월로 연기하였음.
	20. 연구원들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됨.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연구원은 석사급이고 비정규직임. 계약기간이 최대 2년임.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21. 특별자치도 특례에서 물 분야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함. 3차 개정 목록에도 빠져있음. 한강수계기금 배분액도 매우 부족함.	중앙정부와 정치적인 책임임. 토론회 등을 통해 조금씩 논리를 확보해 나가겠음.
	22. 재정특례도 전무함.	2차 개정 때 노력하였으나 불발됨
	23. 수행실적을 보면 수탁과제 비율이 너무 높음.	매년 출연금 비율을 조금씩 높여 수탁비율을 낮춰가겠음.
	24.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유는?	원칙적으로 공개, 수탁체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비공개함.
	25. 몇 군데 확인해 보니 수탁체에서 비공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함. 2021~2023년까지 비공개 요구한 업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6. 우리도의 비공개 비율이 높음. 연구원들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독려해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27. 소급승진 대상자가 공교롭게 ‘강원도 분권으로 새시대를 여다’의 편저자로 올라가 있음. 원장님 이름을 올려주는 배려 차원에서 소급승진한 것은 아닌가?	절대 아님.
	28. 원장 취임이후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많이 늘었음. 그 이유는?	22년 9월 취임 전에는 대행체제와 공석기간이라 업무추진비 지출이 없었음.
	29.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 등등해서 올해 식비만 600만 원이 넘게 지출됨. 강사들 상당수가 뉴라이트 소속임. 강원연구원장을 발판으로 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30. 강사 중 한분은 주제와 관계없이 경제, 정치를 넘다들며 열 번 가깝게 오셔서 강사료를 받아감.	단언컨대 주제와 관련없이 부른 인사는 없음.
	31.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윤리 경영을 추진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음. 왜 개선이 되지 않는가?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
	32. 내년에 태백의 광업소가 폐광하고 내후년에는 삼척의 광업소가 폐광하는 점을 감안하면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3. 연구직 인력이 5명이 결원임. 연구원 인력을 충원하여 제대로 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올해 2명을 채용했는데 기존인원 2명이 그만둠. 내년에 적극적으로 뽑겠음.
	34. 법률팀을 별도로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겠음.
	35. 순세계잉여금이 22년 15억 원, 23년 12억 원 24년 예산안에는 8억 원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23년 출연금부터 정산해야 함. 내용을 숙지하시고 재정건전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산을 잘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6.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나 특례관련 연구를 용역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스스로 해야 할 과제이지 용역대상은 아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38 건)	37. 각종 포럼, 세미나가 강원연구원의 어떤 연구에 뒷받침 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각각 정 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38. 강원연구원 기사에 관한 반박자료가 미디어펜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옴. 조우현 기자가 이전에 원 장의 비서였다고 하는데 반박자료 내는 것과 관 련이 있는가?	기자 본인의 선택임.

3. 수범사례

수감 부서	감 사 위 원	수범 내용

Ⅲ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총 건수

부서 및 기관별	시정 · 처리 요구 건수	비 고
합 계	182건	
① 기획조정실	28건	
② 행정국	29건	
③ 특별자치추진단	25건	
④ 글로벌본부	13건	
⑤ 강원도립대학교	15건	
⑥ 감사위원회	27건	
⑦ 강원인재육성평생 교육진흥원	12건	
⑧ 강원개발공사	14건	
⑨ 강원연구원	19건	

2. 부서별 내용

① 기획조정실

- (1)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비율이 너무 저조한데 적극적인 집행관리 방안과 관리감독이 필요함.
- (2) 지역소멸대응기금 중 광역분을 강원도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투자하여 실제로 출산율이나 교육환경이 바뀔수 있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
- (3)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절대 위원의 수가 증가한 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주기 바람
- (4)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및 홍보비가 6억 9,2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기부를 받았으면 지출내용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함.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 필요.
- (5) 최근 3년간 조례규칙심의회 현황 자료에 의하면 단 한번도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개선이 필요함.
- (6) 재정준칙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음에도 시행 첫 해부터 허용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노력해주기 바람
- (7) 재정 상황의 문제로 신청사 기금을 일부 환수하는 만큼 향후 신청사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주길 바람.
- (8) 인구정책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에 매진해주기 바람
인구정책 중 인구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해양관광레저, 캠핑 등)을 선별해 내실을 기할 수 있길 바람
- (9) 재정 상황을 고려한 외부용역, 행사 축소 방침에 따라 자체 점검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운영 하되, 이에 대비한 내부직원의 추가적인 업무 발생과 관련한 대응과 내부 활용의 효과성에도 신경써주기 바람

- (10)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용역결과물의 최종 제출 전에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11) 신청사건립시 청사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로 부지, 주차시설 등의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 (12) 집행부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회간 소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기 바람
- (13)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인 취업,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며, 특히 교육과 관련해 강원도립대학의 경쟁력 확보(간호학과 신설, 강원관광대 간호학과 인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람
- (14) 지방세수 여건을 고려한 도세 감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15)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서의 선 별과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16) 2025년 대학 RISE 사업에 대비해 전담조직과 센터 등 차질 없게 준 비해주기 바람
- (17)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질 때를 대비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함.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여건의 자생적 호전에 기댄 재정운영보다 는 경우에 따라 지출 확대 등 탄력적 재정 운영을 검토해주기 바람
- (18) 주민참여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19)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20)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평가 이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대 폭 증액된 경우도 있음. 향후 보조금 관리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 (21) 상습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공개 대상 체납액 하향 등의 적극적인 체납자 관리 노력이 필요함
- (22)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량에 대비한 고문변호사의 적정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3) 도 공공기관의 가산금 등의 납부현황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 (24) 출자·출연기관은 설립기준만 존재할 뿐 관리, 감독이 공기업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고위 공무원들의 노후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고 현직 공무원들에겐 책임전가용 기관으로 활용될 수가 있음.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조례를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5) 출자출연기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데 그중 40%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비슷하거나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출자기관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일부기관장등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자질검증과 인선절차에서부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여야 함.
- (26) 현재 행정국에 있는 조직과 인사 업무를 다른 실국으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고, 행정국의 조직관리 기능의 평가를 통해 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27)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28)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골드 시티 조성 등 각종 방안을 발표 했는데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방안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람

② 행정국

-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 고용비율도 해결해서 차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 부단체장 인사교류시 목적에 맞게 4급보다 5급의 시군 공무원을 받아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3) 출자·출연기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1년 미만, 즉 6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의 인사발령은 지양해 줄 것을 권고함.
- (4) 도 공직채용 경쟁률 제고 및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5) 도 전입시험 관련, 시·군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제도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 (6)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주문함.
- (7) 공무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순환근무 배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8) 파견 직원의 복귀 시, 일부 소수직렬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 (9) 육아휴직 권장 및 후속조치 등 긍정적이고 평등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함.
- (10)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의 분리와 관련하여, 현재 시스템의 사후 평가와 고민이 필요함.
- (11) 국외 장기교육결과보고서를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결과보고회 끝나고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 (12) 국외장기교육 훈련 후의 결과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즉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 (13)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 도의회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14) 장기교육과정을 수행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 (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16)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에 대한 부과 및 정리가 필요함.
- (17) 올해 6월 강원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 완화된 기준과 신인도 가점 등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도내 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찰에 응하도록 제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람.
- (18) 업무에 적합한 적정 정원 조정이 필요함.
- (19) 우리 도는 도시계획직 0명, 학예연구직 7명에 불과함. 전문 인력 정원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력충원과 승진 등 처우개선이 요구됨.
- (20) 정보화마을의 광역화 등 사업효과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함.
- (21) 활용도와 이용률이 낮은 위하고앱의 이용현황 파악 및 사업검토가 필요함.
- (22) 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문제해결을 위한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 (23)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양성 평등을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24)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5) 직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신경써주시기를 바람.
- (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7) 제2청사 직원들의 고충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 (28) 인사제도 중 다면평가는 부작용보다는 하향식 시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동료, 하급자 등 여러사람이 평가하므로 입체성이 있으므로 다시 시행할 것을 권고함.
- (29) 행정국의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를 달성성과를 과장하지 말고 성과의 달성과 관련이 없는 지표를 설정해서 마치 달성한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함.

③ 특별자치추진단

- (1) 계획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중앙 부처와 협의 및 조정을 잘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구성하고 노력하기 바람.
- (2) 3차 개정 시 의회 특례, 자치조직권, 자치재원(재정특례)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3) 중앙 부처와 협상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한시적 임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력 운용 방안을 세밀하게 계획하기 바람.
- (4) 2차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3차 개정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5)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과 실적을 제고해 주기 바람.
- (6) 석탄 경석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3차 개정(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7) 중앙 부처와 개정안에 대해 협상 및 조정을 할 경우, 중하위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 부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8)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도지사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등의 행사가 개최, 웹툰이 발행·배포되었음. 해당 행사와 웹툰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재고해 주기 바람.
- (9) 향후 농업·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에도 대비하길 당부함.
- (10)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의 용역기간과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음. 앞으로 중간보고, 심사 등의 용역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11) 제주와 세종의 사례와 비교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임. 향후 인구 증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슬로건을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기 바람.
- (1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이 3차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13) 3차 개정을 위해 운영한 워킹그룹에 시·군의 참여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향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 (14) 기업 유치를 위해 맞춤형 규제개혁을 준비해 주기 바람.
- (15) 전문가 자문단 위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위원의 해촉을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단 현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것을 준비해 주기 바람.
- (16) 열악한 강원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주기 바람.
- (17) 물환경보전특례, 상수원 보호 지정 특례를 반영하여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함.

- (18) 관광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무사증 도입 정책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해 주기 바람
- (19) 강원랜드 매출 총량제의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 협상과 법 제정을 잘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 (20) 세종, 제주, 전북과 고도의 차치권, 실질적 지방분권 확보를 위해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해 주기 바람.
- (21) 3차 개정 시에 강원항만공사, 국제학교와 관련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22) 산림과 농지관련 조례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23) 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법에 대해 도민 홍보와 교육을 많이 했으나 아직도 일부 도민들은 복리증진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음. 특례발굴에 대한 일부 시군의 무관심에 대해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24) 가능한 한 중앙부처의 시행령도 조례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25)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을 위한 노력, 정부 설득 필요

④ 글로벌본부

- (1) 글로벌 본부의 운영 결과 근무환경과 기능 등의 문제점 분석과 성과 분석을 통해 도민이 글로벌 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감할 있도록 해주기 바람
- (2) 통근버스와 직원관사 비용으로 연간 20억 소요 예정인데 향후 인력 증원시 예산 부담과 인력 순환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3) 제2청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4) 제2청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주거지 등을 고려한 인

사운영이 필요함

- (5) 현장 소통의 강화 등으로 제2청사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6)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7) 강릉, 양양 등 동해안권 해양레저산업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8)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야함.
- (9) 제2청사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고려해 관사 문제, 통근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10)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명칭이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정해짐.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보이니 “경기도청 북부청사” 처럼 도민들께서 납득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청 “영동본부” 나 “영동청사” 로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람.
- (11) 제2청사가 임시적 청사의 이미지가 짙은 만큼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도출해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제2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소요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제2청사 신축 계획 등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의 청사 운영이 필요함
- (12) 제2청사가 본청사와 물리적 거리가 있는 만큼 효율적 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해주기 바람
- (13) 양양지역의 현안 사업인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글로벌 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역할을 하여야함.

⑤ 강원도립대학교

- (1) 강원도립대의 위상에 맞게 입학생의 지역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잘세워서 입학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2) 교수들의 연구논문 관련 심사평가표의 C등급의 평가항목(3개 항목 중 교내논문집 게재논문)은 합당하지 않음.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요청함.
- (3)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세입액의 8% 정도임. 교육활동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람.
- (4) 학과 개편 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수요자의 정보 혼선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 (5) 4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입학이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
- (6) 대학 구성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7)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관광대학교와 통합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8) 최하위권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9) 향후 학령인구 감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컬 대학의 합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10) 도 제2청사의 대학 내 건물 입주에 따라 일부 강의와 시설 운영(VR 골프 실습실)이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학사 운영과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주시기 바람
- (11) 도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브랜드를 지켜내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12)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교육적 기회 발굴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13) 향후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산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단기적 개편 대신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학과 발굴 등 체계적인 개편에 매진해주시기

바람

- (14)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제논문 실적 등 교수의 연구 역량의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15) 우수 학생과 우수 교수진의 유지와 유치를 위해 교내 구성원의 고용과 보수 등의 환경에 문제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⑥ 감사위원회

- (1)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부탁드리며 감사위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패요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및 점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게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강원연구원 관련하여 감사진행 중이므로 현진권 원장의 출판물 발간과 관련 내용 지출 적법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다면평가 폐지이후 이뤄지는 승진인사에 직무감사를 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6) 출자출연기관의 6개월 미만 등 단기간 전보발령도 직무감사시에 사유를 검토바람.
- (7) 강원연구원의 경력직 연구원 신규채용에 대하여 성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바람.
- (8) 도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9) 감사위원회에 적합한 정원 확보가 필요함.
- (10) 감사위원회 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11) 전문성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개방형 인재 채용이 필요함.
- (12) 사전 컨설팅 등 우수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 확립 등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3)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14) 사전컨설팅제도를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15) 의료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노조 갈등 관련, 전문성이 동반된 종합감사가 필요함.
- (16) 강원테크노파크의 부적정한 재정 집행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 (17) 감사의 기준 및 잣대가 전 도정과 현 도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18) 행동강령책임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9) 감사 시 복무규정 준수와 피감자에 대한 배려·존중이 필요함.
- (20) 보조금 사업의 회계연도 끝난후 2개월내에 정산하지 않은 사례들 많음.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 단체에 페널티를 주기 바람.
- (2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대로된 이행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행해야함.
- (22) 교육청 관련 기관에 대한 원활한 감사와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함.
- (23) 부실한 용역 성과물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24)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 (25)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6) 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원칙과 소신있는 감사를 주문함.

(27)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⑦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1) 저소득 특수학교(학생) 학생을 위한 손길더함장학금,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희망누리장학금 지원 확대 필요
- (2) 인평원에 도 공무원의 파견은 조례로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이는 인평원 내 직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기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도청으로 돌아가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짐. 파견근무는 개선되고 지양되어야함
- (3) 국가장학금 증액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
- (4)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절차에 맞게 출연금 정산을 준비할 것
- (5) 강원학사의 지원율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교통과 시설의 문제이므로, 기존 시설 관리에 유의하고, 신축 학사 사업을 잘 준비할 것을 주문
- (6) 관악학사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을 비롯한 문제를 다 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
- (7) 현 관악학사에 대한 감정가 산출과 관악학사 신축·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의 주문
- (8)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은퇴 후 재취업,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기 바람.
- (9) 고령자를 위한 문해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주문
- (10) 관악학사 신축·이전 시 2인 1실 제도를 지양하고, 1인 1실 추진 필요. 학생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함.
- (11) 향토학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지역청년 유출심화, 지역대학생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춘천, 원주, 강릉에도 강원학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12) 현재 한명의 담당자가 자금관리, 예산관리, 회계처리, 결산관리, 재산관리, 기부금관리, 기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적정인력 배치노력 직무점검 등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⑧ 강원도개발공사

- (1) 출자 외에도 강도 높은 자구책,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채비율을 낮춰주기 바람.
- (2) 태백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사의 중지와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극적 대응해주기 바람. 태백시와 법정다툼에 가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주기 바람
- (3) 알펜시아 매각 금액 및 정산 내역 중 22.12.13. 현재 중재요청한 38억 원을 빠른시일 내에 종결하기 바람.
- (4) 레고랜드 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한 연장계약 관련하여 수수료 증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5) 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비를 도 개발공사가 적절히 투자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음. 즉 시설 노후에 따른 설비교체, 간판, 바닥유도 사인물 보수는 공사가 부담하여야 함. 불공정 계약이 있다고 하면 변경하시길 바람.
- (6) 자산매각이나 대행사업 외에 부채비율을 경감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공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공공목적의 신규사업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기 바람.
- (7) 원주 구 종축장 부지에 공공 임대아파트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 (8)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의 기준점을 통일하여서 차이가 없도록 제

작해주기 바람

- (9) 종합적 행정복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 (10) 신성장사업(고은리, 우두동)에서 민간토지 매입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빠른시일내에 매입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람.
- (11) 원주 구 종축장 부지와 구 드림랜드 부지에 관해 도와 강원개발공사, 원주시가 잘 협력해주기 바람. 원주 구 드림랜드 출자 시 다짐했던 원주시와의 협업, 의사소통 등이 잘 지켜지기 바람
- (12) 고은리, 우두동 사업 용역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 중간중간 철저히 체크해주기 바람
- (1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내규에 대해 개정작업을 진행해주기 바람
- (14) 수의계약시 지역 대행사업의 경우 도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주기 바람

⑨ 강원연구원

- (1) 소급인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 (2) 연구원의 비용을 책자를 출간할 때는 강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표시를 당연히 해야함. 연구원의 비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본인 개인의 저서처럼 해서는 안됨.
- (3) 공공기관인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포럼, 세미나등에서 강원연구원의 역할은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임. 제목이나 주제를 너무 급진적이고 단체를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함.
- (4) 강원연구원의 논란은 김진태 도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람.

- (5) 연구과제의 수가 일부 연구위원에게 쏠리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게 됨.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6) 연구원의 제안을 통해 도가 투자한 사업이 기업회생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고, 도민의 삶의 질에 연결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부탁함
- (7)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들이 주문한 내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
- (8)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원장이 되기 바람
- (9) 소급인사 관련 급여 3,050만 원 회수하라는 재정조치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람.
- (10) 클린아이시스템에 따르면 직원 평균임금이 2021년 8,300만 원, 2022년 7,900만 원 정도 인데 충북과 전북연구원과 비교를 하면 20~30% 높음. 충북연구원은 2022년 기준 기획과제는 17건인데 강원도는 8건임. 강원연구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임. 경쟁력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함.
- (11) 연구직 인력이 5명 결원인데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람.
- (12)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특례 발굴 과정에 있어서 환류됨. 그러나 한강수계와 관련된 특례, 재정특례를 받아내지 못했는데, 3차 개정안에도 들어있지 않음. 앞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해주기 바람
- (13) 수탁과제의 수가 많은데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진행해 주시길 바람.
- (14) 내년에 태백의 광업소가 폐광하고 내후년에는 삼척의 광업소가 폐광하는 점을 감안하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15) 법률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화해서 운영하기 바람
- (16)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른 정산을 잘 진행해 주기 바람
- (17) 재정분권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람
- (18) 강원연구원은 직종별 정원만 정해놓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조직 및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서 소급승진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여짐. 조직별, 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직제를 개정해 주시기 바람.
- (19) 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